

계시록 22장

강 같은 평화

계시록 22:1-2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22:1-2)

요한은 새로운 성에 있는 생명수 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강과도 같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 년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며, 이로 인해 그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양쪽으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큰 계곡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새 성전에서 강이 솟아날 것이다. 이 강은 나뉘어질 것인데, 절반은 사해로 흐를 것이며, 절반은 지중해로 흐를 것이다(슌14:4, 8). 이 강물이 사해로 흐르면 사해의 물은 소성함을 얻을 것이며, 또 그 속에 고기가 심히 많게 된다고 했다.(겔47:1-12)

예루살렘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강물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흐르는 생명수 강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강은 많은 유사성이 있다. 강가에는 달마다 몇 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다. 에스겔서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 강가의 나무들도 이와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과 비슷하게 계획하셨다. 특별히 예루살렘 주위는 더욱 그렇다. 생명수 강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 상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강이 아닌 것을 강이라 부르시고, 나무가 아닌 것을 나무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의미하는 그대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영적으로 그럴듯하게 해석하여 성경 본문의 뜻을 완전히 왜곡한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본다.

계시록 22:3-6

다시 저주가 없으며(22:3)

지금은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창3:17-18). 인간도 역시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고 하셨다. 그러니 노동도 일종의 저주이다.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땅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새 땅에서 빈둥빈둥 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산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22:3-4)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하고 상상해 보곤 한다. 그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울것이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22:5-6)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안다. 얼토당토 않은 말처럼 여겨진다는 것도 안다.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다. 꼭 동화처럼 들리겠지만, 그러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 것이다.(벧후1:19)

계시록 22:6-21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22:6-7)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묻는다. 요한은 이 말씀을 거의 2,000년 전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벧후3:8)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22:8)

요한은 또 다시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잘못을 저지른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22:9-12)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22:13-19)

이런 경고의 말씀에 계시록을 함부로 고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의 처음 세 장과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은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록은 이 세상의 나중에 대해서 말한다. 대조되는 점들을 도표로 열거해보면다음과 같다.

창 세 기	요 한 계 시 록
-------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계21:1)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창1:10)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21:1).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창1: 5)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계21:25)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창1: 16)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계21:23)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2:17)	“다시 사망이 없고”(계21:4)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창3:16)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계21:4)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창3:17)	“다시 저주가 없으며”(계22:3)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창3:1) : 사단은 간교한 자(속이는 자)로 나타난다(창3:1)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계20:10) : 사단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3:22-24) : 사람은 생명나무 곁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되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계22:2) : 누구나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창3:24)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계22:4)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창2:10) : 인간이 처음 살았던 곳은 강가였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계22:1) : 인간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강가에 있다

무슨 책이든 마지막 장은 흥미로운 법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주기 때문이다. 모든 비밀과 경위와 의문점들이 함께 제기된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를 드러내실 때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날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22:20-21)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것을 깨달은 요한은 자연스럽게 대답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